

李源祚의 「耽羅十謠」小考

梁 淳 秘*

目 次

- | |
|---------------|
| I. 序 論 |
| II. 背景과 爲人 |
| 1. 背 景 |
| 2. 爲 人 |
| III. 「耽羅十謠」分析 |
| 1. 異香 질은 風物 |
| 2. 女人들의 生活風俗 |
| IV. 結 論 |

I. 序 論

필자는 「白鹿語文」 8집 (1991년 2월)에 擬窩 李源祚의 「瀛州十景歌」를 고찰해 발표한 바 있다. 본고는 계속해서 擬窩가 1841년 (憲宗 7년)에 제주목사직을 제수받고 제주도에서 목사 재임 기간 동안 읊은 竹枝詞系 紀俗詩인 5언시 「耽羅十謠」를 고찰하여 그것이 갖는 국문학적 위상을 정립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II. 背景과 爲人

1. 背 景

擬窩(1792~1871)가 관리로서 경륜을 펼쳤던 시기는 조선의 후기 사회로 세도정치가의 발호로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한 때였다. 곧 왕권 약화로 인한 三政의 문란 탐관오리의 준동 민생 고의 가중이 극에 달했다. 한편 외래문물의 유입으로 인해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이 풍미하던 때였다.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시기 현종 7년(1841) 윤 3월에서 현종 9년(1843) 윤 7월까지 제주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1840년 영국배가 대정현의 가파도에 내박하여 우마를 노략질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擬窩의 전임 목사인 具載龍이 파직당한 바 있었다. 곧 擬窩의 제주도 입도 연유는 바로 영국인의 제주도 표착 사건에서 비롯한다. 이 사건으로 전임목사 具載龍은 조정의 문책으로 파면되고 그 후임으로 擬窩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¹⁾ 당시의 제주도의 사회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조정대신들이 비변사에게 아뢰기를 “곧 전라 감사 李穆淵의 장계를 보니 제주 목사 구재룡의 보고를 열거하였습니다. 대정 모슬포 가파도에 영국배 두 척이 내박하였는데 감히 방자하게 발포하여서 우측을 겁락하는 변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해당 현감을 파직하고 잡아다 신문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蠻船이 바다에 출몰하는 것은 이들의 교활한 습성인데 이처럼 아주 해이해진 海率로서는 비록 국토를 수호하고 방어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렵다고하나 섬을 빙 둘러 있는 항포구는 모두 변란을 대비하는 중지로 연결되니 戎備의 방책은 진실로 마땅히 충분하게 규찰하여야 합니다. 하물며 저들은 40여명에 불과한데 어찌 미리부터 두려워하여 도망치기에 겨를이 없었던 말입니까. 사건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니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목사 구재룡을 파출하고 잡아다 신문하고 처치하십시오.”라고 하니 군황이 윤허하였다.”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고도이므로 토질이 척박하고 풍수해에 의한 흉년이 자주 있어 제대로 救荒 대책이 서지 않았으며 李源祚 목사 재임 당시의 제주도 인구는 제주, 대정, 정의 삼읍의 元戶가 합하여 1만820호이고 남녀 함께 7만6천81명이어서²⁾ 많은 도민들은 굶주림과 일상적인 생활고에 봉착했었다. 이 무렵 1840년 9월에 秋史 金正喜가 국수죄인으로 대정현에 위리안치 된다.³⁾ 한편 1845년 5월 22일에 영국배 사마랑호가 우도(소섬)에 내박한다.”

2. 爲 人

擬窩는 정조 16년(1792)년 星州 大浦里에서 탄생하여 급제출신으로 21세에 副正字, 22세에 鄭立齊(宗魯)를 예방 25세에 著作, 直長兼博士가 되고 柳壺谷과 柳壽靜齊, 柳定齊(致明)를 歷訪하여 李大山(象靖)의 旨訣을 논했다. 학통상 그는 李葛庵·李大山·鄭立齊 혹은 柳定齊 등 虎派를 계

1) 「擬窩全書」 擬窩府君家狀 여강출판사 영인 1987, pp.453~468.

擬窩先生年譜, pp.453~457 참조.

2) 「현종실록」, 현종 6년 12월 병술 20일.

3) 「현종실록」, 현종 7년 3월 을축 17일.

4) 「현종실록」, 현종 6년 9월 신묘 4일.

5) 「현종실록」, 현종11년 6월 기미 29일.

승했다. 27세에 성군전·사헌부감찰·병조좌랑이 되었으며 28세에 지평, 29세에 정언, 또 지평, 35세에 성군직감·結城縣監을 거쳐 39세에 정언, 전적, 48세에 사헌부장령 등, 49세에 江陵府使와 50세에 제주목사로 부임했다. 이 때 추사 김정희와 僞古文十六言에 대해 논변하였는데 추사는 청나라 若據 이래로 阮元(1764~1849)에 이르기까지 「古文尚書」를 王肅의 위작, 혹은 東晉 梅賾의 위작이라고 한 것을 수용했으나 옹와는 이에 대해 「僞古文에 한 두곳 의심이 가는 곳이 없지 않지만 禹謨의 「人心, 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등의 十六言은 聖聖이 相傳하는 心法이다. 성인이 아니면 程朱께서 表章 발휘하지 아니했을 것이며, 後賢도 어떻게 尊信하려 講明 하였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본래 若據는 「古文尚書疏證」에서 고문상서를 僞書라 고증하였는데 毛奇齡은 「古文尚書冤誦」에서 반박했으나 閻氏의 고증에 대적하지 못해 위작으로 확정된 일이 있었다. 위작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宋儒의 人心·道心說이 기초부터 동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荀子」의 「道經曰」과 논어의 堯가 舜에게 「允執厥中, 四海困窮」(堯曰篇)이라고 한 근거가 있으므로 위고문은 그것을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또 옹와는 52세에 형조참의, 53세에 좌승지 參贊官 우부승지 좌승지가 되었고 55세에 「性經上下篇」을 저작, 「性經」은 그의 獨得處요, 동시에 철학사상의 집약인 것이다. 이 해에 옹와라 號하고 慈山府使 慶州府尹을 거쳐 철종 2년, 60세에 중요한 철학서인 復性圖說을 저작하고 또한 61세에 대사관, 65세에 병조참판, 68세에 「山房萬物錄」을 저술하였으며 벼슬은 고종 2년(1865)에 한성판윤, 고종 3년(1866)에 공조판서, 80세(1871) 上護軍兼判義禁府事로 마치고 세상을 떠나니 다음 해 「純行不夾 日定 行善可紀 日憲」이라 하여 시호를 定憲이라고 했다. 그의 학통은 영남의 퇴계학과에 속한다. 옹와의 학통은 「心即理說」을 주장한 이항로, 기정진, 등과 성리학의 쌍벽을 겨루었던 조카 寒洲 李震相(1818-1886)으로 이어진다.

擬窩는 목사 재임 기간 동안 제주도 삼읍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詢祭하고 해안에 축조된 포대를 점점 제주의 흥황을 계청하였다. 그래서 재임동안 그는 제주도 도민을 위해 어느 역대 목사보다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 신축년 삼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보자 異樣船인 외국배가 떠나가 버리니 3년 동안 경계할 만한 일은 없었다. 이에 擬窩는 곡식 운반을 청해 구휼책을 펼쳤고 도내 가구마다 세금을 경감해 주었다. 그리하여 관에서 「兩邑老人男女上下過百歲者 七人 九十八十者二百餘人 老病者」(탐라록 p.100) 노인들을 위해 養老宴을 베풀었으며 養老宴記附詩를 짓는다. 사냥하기 위한 군사도 혼련시켰고 제주섬의 목장을 파하여 給民田政을 마련하였다. 한편 광해조 때 계축옥사로 말미암아 제주도 대정현에 1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한 제주 五賢의 한 사람인 桐溪 鄭蘊의 선비정신을 기리기 위해 松竹書院을 지었으며 동계 정은 선생의 대정적거 유희비명을 만들었는데 글씨는 당시 대정현에 유배중인 추사 김정희가 썼다. 아울러 三泉書堂도 세워 교학을 일으켰다.⁶⁾ 한편 재임 기간에 일어난 제주도의 모든 공무를 기록한 「耽羅

6) 「擬窩全書」 여강출판사 1987, pp.446~447.

辛丑三月 渡海 異舶已去 三年無他警 於是請移粟 賑飢戶 謁 官供行養老宴 因山嶽而練軍 實羅島場 而給民田政既成 創鄭桐溪祠 建塾三泉以興儒化

關報錄」과 목사로서 전라도관찰사 등에게啓한 것을「耽羅啓錄」을 엮었다. 또한 제주도 내의 인물, 호구, 풍물, 사적, 도서, 연구에 기본자료가 되는「耽羅誌草本」을 편찬하였고 상·중·하 삼책인 집「耽羅錄」을 남겼다.”

凝窩의 첫이름은 永祚이었으나 급제 후 21세 때 翼祖 御諱를 피하여 源祚로 改名하였다. 凝窩의 학문은 학통상 영남의 퇴계학파에 속하며 스승은 立齊 鄭宗魯가 된다. 立齊는 主理論의인 <太極動靜說>을 주장하였으며 凝窩는 이 학설을 계승하여 자신의 학설을 수립하였는데 이른바 理動·理生氣의 <理生氣說>로 主理論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의 학문적 특색은 <性經>, <山房萬物錄>, <復性圖說>, <四七理氣辨後> 등의 저술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가 性學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본성의 회복이었다. 心에서 본연의 덕성을 회복하려면 惡情을 억제하고 善情을 되살려 기질을 순화해야 한다. 곧 기질을 순화해야만 덕을 획득할 수 있다. 기질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히 도덕적인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善의 실마리는 확충되며 정도를 추구하고 사는 올바른 인간성을 갖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은 無形의 존재인 理의 작용의 소산이다. 덕은 사욕, 私己의 극복이므로 늘 수양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耽羅錄」에 수록된 그의 理學詩는 분량상 많지 않으나 이들 詩를 통하여 凝窩가 주리론적 처지에 서서 사물운용의 이치를 파악하려는 사상성을 볼 수 있다.

한편 탈주자학적 기운의 태동으로 정통의 학문적 주자학적 위상이 흔들릴 때 다른 학문에 경도됨이 없이 주자학을 고수해 공고하게 견지해 나갔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文·史·哲을 겸수하여 각자의 소질과 소양에 따라 文勝한 문인 理勝한 학인으로 성향을 달리하기도 하였지만 학문과 문장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도문일치론을 문학론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자이면서 문인이었고 문인이면서 또한 학자였다.

그는 “유형, 유성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어 氣이다. 무형, 무성은 보거나 들을 수 없어 理이다. 이것은 넓혀지고 운용되는 바탕의 원인이 되니 비록 氣에 붙어서 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발휘되는 묘는 실로 理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유학의 학문은 반드시 말하길 理學이니 주역의 말에 窮理이며 대학의 格物이 이것이다.”⁷⁾고 하였다. 이러한 凝窩의 사상을 보더라도 그의 문학관은 바로 제도론적 문학관이었음을 쉬 이해할 수 있다.

7) 「凝窩全書」 pp.16~17.

8) 劉明鍾「朝鮮後期の 性理學」以文出版社 1984, pp.541~542.

有形有聲 有目可觀 有耳可聞者 氣也 無形無聲 不可觀 不可聞者 理也 氣之有所作爲而理 是基所以然 數施用之資 雖靠於氣而主張 發揮之妙 實由於理 故儒學之學 必曰 理學 易之言 窮理 大學之言 格物是也

Ⅲ. 「耽羅十謠」分析

「耽羅錄」에 드러난 시의 내용상의 특징은 첫째 목민관의 처지에서 제주도민의 겪고 있는 자연의 재해인 한발, 흉년등으로 굶주리는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爲民精神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둘째 王事를 맡은 충직한 관리로서 위국충정의 면모가 발현되었으며 셋째 제주도의 각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뛰어난 풍치와 자연을 대한 후의 느낌을 實景으로 그려 山水詩가 많으며 넷째 성리학에서 主理的 입장을 보인 理學詩, 도덕적 수양을 위한 詠物詩 등이 있고, 다섯째 제주지역의 특이한 풍물과 풍속을 읊은 풍토시가 정치한 안목으로 그려지고 있다.⁹⁾

「耽羅十謠」는 바로 탐라록에 드러난 시의 내용상의 특징인 다섯째 속하는 작품인데 제주섬의 고유한 풍물과 풍속, 제주도민의 생활 면모를 읊은 竹枝詞 계의 5언시다. 竹枝詞란 향토의 경치나 인정 풍속 등을 읊은 노래이다. 원래 죽지사관 중국의 樂府의 이름으로 일명 「巴歛辭」라고 했다. 唐書에 의하면 「每詞歌竹枝」라는 대목이 있는데 唐의 劉禹錫이 처음으로 부른 것으로 남녀의 정사 또는 그 지방의 풍속 따위를 읊은 것이다. 죽지사는 당에서는 주로 巴蜀의 풍경을 기술하였는가 하면 송의 송동과 이후 점차 그 본래의 뜻이 변하여 오로지 그 지방의 풍토를 노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方言, 俚語가 混淆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다소의 정사를 노래하면서 반드시 지명을 밝혀 題하여 某竹枝라고 하게 되었다. 그 예로 元에 楊鐵岸의 「西湖竹枝」를 들 수 있다. 이른바 文妖, 妍麗, 情文 등으로 이색적인 풍토와 민속을 노래하고 있다.¹⁰⁾ 「탐라십요」는 李源祚가 제주도 목사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정한과 제주도의 당시의 이색적인 풍토와 민속을 5언시로 詠出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악부7절로 吟詠한 題하여 某竹枝라는 형식이 아닌 竹枝詞系의 시가라 본다. 본토와 다른 제주섬의 異香질은 풍속은 제주섬을 내왕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며 시선을 충분히 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耽羅十謠」의 구조는 5언 10행이 한수로 되면서 十謠로 되고 있다. 이 「耽羅十謠」의 주체적 내용은 첫째, 제주섬의 異香질은 風物을 노래한 放牧·踏田·除草·築場·槎船 등이 있고 둘째, 제주섬 女人들의 生活風俗을 노래한 舂磨·汲簫·織涼·潛女·房妓 등으로 이룩되고 있다.

1. 異香질은 風物

1) 放 牧

9) 韓敬姬 「濟州道 風土文學 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년, p.106 참조.

10) 「中國學藝大辭典」, 弗威文化社, 1976, pp.826~827.

清晨郭四門	새벽 성문 밖 언저리
牧童嘯且呼	목동은 휘파람 부네.
君家十鳥特	그대 집 열마리 암소
我家雙白駒	우리 집 말 한쌍.
物性尚愛群	본디 떼짓기 좋아해
出入與之俱	짝 지어 드나든다.
張稻與李麥	쌀, 보리 자라나니
慎勿輕踐蹂	마구 밟지 말라.
相携下山椒	산에서 끌고 내려오니
今年多廢曠	올해도 밭은 황폐해지겠네.

위의 시 「放牧」은 제주도의 초원지대에 방목되고 있는 소 말이 떼지어 다니며 발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읊었다.

제주섬에서의 방목 유래는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한 이후 고려 충렬왕 2년에 몽고마 160필¹¹⁾을 水上坪에 들여 와 목장을 설치하고 처음에는 말만 사육하더니 다음 해 부터는 소, 말, 낙타, 노새, 양 등을 들여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목축업이 시작되었다.¹²⁾ 원이 탐라에 목장을 개설한 이유는 일본 정벌에 필요한 마필을 조달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房屋分野 즉 방목에 적합한 천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元史에 원대의 여러 목장 중에서 탐라의 목장을 수위로 기재¹³⁾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대의 목장관리는 당초는 달루가치로 하여금 겸임하여 관장케 했으나 목축에 관한 일을 전담하기 위해 斷事官, 萬戶, 牧胡 등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충렬왕 원년(1275)에 원은 제주를 耽羅로 복호하여 직할지로 삼았으며 동왕 20년(1294)에는 환속이 되어 다시 고려의 영역이 되자 제주라 개칭하게 되어 목사를 두게 되지만 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는 우수한 목마장이며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원의 세력을 계속 잔류시킴에 따라 제주도에 대한 고려와 원의 지배가 혼미를 거듭하게 된다.

지금도 제주도에 잔존하고 있는 馬政 어휘의 대개가 몽골어와 유사점이 많음을 상기할 때 당대 마필사육에 끼친 원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100여년에 걸친 관리 기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목장을 설치한 결과 말의 번식이 잘 되어 애초에는 제주섬의 산야가 모두 우마 방목지가 되다시피 했다. 성종 때에는 한라산 산록 주변에 돌담을 둘러 목양지를 10개소의 목장으로 나누어 북제주에 6개소장, 대정에 7, 8 소장, 정의에 9·10소장을 두었다. 그 밖에 대정현의 萑洞場을 비롯해 牛島목장, 山場을 합하면 도합 13개가 된다.

목장을 관리 감독하는 직제에는 감목관이 있고 마감 밑에 우감이 있으며 群頭, 群副, 牧子 등

11) 「高麗史」卷 28 同王 2年 8月 丁亥條.

12) 「新贈東國輿地勝覽」卷 38 濟州牧條.

13) 「元史」卷 100, 兵志, 馬政條.

의 순서로 되어 있다.

조정에서 마필을 점검하는 방법은 제주절제사(목사 겸임)에게 춘추로 각 소장을 순회하며 말의 번식 상황과 마필수를 점검케 하여 조정에 보고토록 했다. 마필 점검시에는 많은 폐단을 야기시켜 제주섬 사람들이 말몰이꾼으로 동원되어 한창인 농사철을 놓치기가 일쑤였다.

2) 踏 田

島田多犖确	섬의 밭은 들도 많고
犖确又浮燥	튼데다 거칠기도 하네.
不踏苗不生	씩 밟아주지 않으면 싹도 못 되어
愈踏苗愈好	밟을수록 싹에는 좋다네.
徇徵爾馬牛	우마는 격고
人力不勝草	인력으로 싹밟기도 힘드네.
富者自有屯	부자야 땅이 있지만
貧者賃以布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빌어 쓰네.
但願播種後	파종한 후 생각 간절해도
十日不下雨	열흘이나 비도 내리지 않네.

위의 시 〈踏田〉은 제주섬에서 조밭밟기의 풍속을 읊은 것이다. 제주도는 화산회토이어서 토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흙이 떠서 줍씨를 뿌려 밭을 잘 밟아주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 버리거나 잘 밟아하지 못하게 된다.

줍씨를 파종한 다음 우마를 앞세워 밭을 밟으며 나무가지 잎을 엮어 부채모양으로 만든 〈섬피〉로써 밭이랑을 고르고 씨를 묻고 되풀이하여 밟는다. 밭 밟는 일을 섬사람들이 수눌음인 공동 노작으로 하여 제주 민요 가운데 〈밭 밟는 노래〉도 여러 종류가 구전되고 있다. 대체로 제주도의 밟는 노래의 후렴구는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구가 끝날 때마다 합창으로 '에에 에헤이에라 에라 이이이 헤헤라 어라라 에에헤에요 으으어라 아하아랑 어러려 돌돌' 각행이 끝날 때 가끔 'A. 렐렐렐렐렐 어허허랑 하아아랑 B'. 혹은 '어러러러령 어러려 돌돌돌'¹⁴⁾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踏田〉을 하는 작업에서 제주도민이 지닌 삶의 현장에서의 강한 협동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이 시는 제주도 땅이 거칠고 건조하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우마를 몰고 밭을 밟는 일을 읊고 있는 것이다. 정조 때 제주에 유배되고 귀향살이 33년을 한 靜軒의 7언시 〈耽羅雜詠〉 21에서도 "제주의 땅은 본디 떠서 깊이 갈지 않고선 때가 일러도 안된다네. 씨 뿌리고 우마를 밟아야 하느니 자갈밭은 곳곳마다 비로 쓴 듯 평평해지겠네"¹⁵⁾라고 표출하면서 「耽羅雜詠」21의 협주에 "섬의 토질은 매달라서 봄같이부터 깊이 갈지 않고 재경, 삼경하여 망종이 지나고도 열흘 전후 되어야 씨뿌리기를 시작하여 초복 후 4,5일이 되어야 끝난다. 피와 조는 씨뿌리고 나

14)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일조각 1965, p.299.

15) 趙貞喆, 「靜軒瀛州處坎錄」 "海中壤土自浮燥 耕不爲深時不早 播穀似教牛馬踏 磽田處處平和掃"

서 우마를 백여필 밭에 몰아 넣어 마치 비로 쓴 듯이 평평하고 큰 길처럼 단단하게 짓밟은 다음에야 그만 두고 다른 밭으로 넘어간다. 만약 밭을 밟지 않는다면 중자는 바싹 말라 버리어 뿌리 내리지 못한다'¹⁶⁾ 고 하였다.

3) 除 草

上品一易田	상품 한 묶음은 밭을 바꿀 수 있고
十畝價百鎊	열 이랑은 돈케미 백 개의 가치.
栗頭讖出穀	조가 겨우 소출낼 때 쯤
栗傍草已長	조 옆에 풀은 더 자란다.
大鋤鋤其上	큰 낫으로 낫질하면
除草易反掌	풀 쉽게 벨 수 있네.
小鋤僅如鉤	작은 낫은 갈고리 같아
拔草苗不傷	풀 잡아 매어야 싹 상하지 않는다.
土性本如此	토질이 본래 이같아
島農功倍常	섬의 농사일 공력도 배가 드네.

위의 시 「除草」는 제주섬의 우마의 사료로 쓰는 꼴에 대하여 읊었다. 제주섬에서는 꼴을 속칭 출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집마다 우마를 사육하므로 사료가 많아야 한다. 겨우내 우마가 꼴을 먹고 썩 쇠똥, 말똥은 밭 거름이 된다. 이러한 거름이 있어야 뜸 땅의 지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주 사람의 삶의 역사는 제주섬의 지리역사적 배경과 그 同軌를 이룬다. 제주도의 자연적 악조건과 삼년에 한번 정도의 식량난, 질병으로 도민의 삶은 참담한 모습이었다. 제주도의 地力은 좋지 않아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어 대대로 영세성에 허덕일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니 우마의 사료의 확보는 곡식 값에 웃도는 高價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의 소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며 이것을 확보해야 겨울철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다. 꼴의 가격이 비싸서 농토 값과 버금가는 정도며 곡식 값에 웃도는 고가이며 꼴베는 작업이 몹시 고되다는 게 드러나 있다.

꼴을 베는 시기는 8월 중순이 되면 거둬들여 집안으로 옮겨 두었다. 꼴을 베는 낫은 보통 낫과 긴 낫이 있는데 성산·표선 등지를 중심으로 긴 낫을 썼다. 긴 낫을 사용하면 단시간 내에 많은 꼴을 베지만 무척 힘이 든다. 그래도 일을 하면서 일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꼴베 때 부르는 제주 민요인 <꼴베는 노래>도 여러 종류가 구전되고 있다. 대체로 제주도 꼴베는 노래의 후렴은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합창으로 '에야홍 홍에로고나' 하고 후렴을 부르는데 노래 사이에 가끔 '에이야홍자 에이야홍'¹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꼴베는 노래를 「홍애기노래」라고도 한다. 힘겨운 일을 하면서 구성진 민요를 부르는 여유로움에 낙천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16) 위의 책 「耽羅雜詠」 21 협주.

17)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일조각 1965, p.307.

4) 築場

累累山海間	겹겹 쳐진 산과 바다
人少而石多	사람은 적고 돌만 많은데.
多石雖費力	돌 많아 힘들어 해도
無石又奈何	돌이 없으면 또 어쩌나.
牛馬不踐田	우마가 밭을 넘지 못하게
鷄豚各守罔	닭 돼기 울타리 친다.
燒會遍北邨	북녘 언덕배기 태워
綠莎護蓬科	푸른 물 썩 웅덩이 보호한다.
築築復築築	쌓고 쌓아 또 쌓으려
一行一舉加	한번 갈 때 마다 돌 하나 없는다.

위의 시 〈築場〉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돌로 경계담을 쌓은 내용을 읊은 것이다. 우마가 농경지에 드나들어 마구 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 고종 때 판관으로 金坵가 축장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다. “州에 본디 논은 없고 다만 밀, 보리, 콩, 조만 심었는데 소, 말, 노루, 사슴이 곡식과 이삭을 짓밟아서 수확할 수 없었다. 또 밭두렁의 경계가 없어서 지방 토호들이 억지 부려 조금씩 잠식해 먹어가 빼앗는 횡포가 심해서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없었다. 公이 돌을 쌓아 그 경계를 정해 경병함을 금했고 짐승의 피해도 막으니 비로소 편안하게 되었다.”¹⁸⁾ 이 기록은 제주섬의 三多중 ‘石多’를 표출하고 있다.

5) 槎船

誰教爾爲州	누 그대로 하여 이 고을 다스리게 했나
四面環以海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음.
非不念乘危	위험함이 절실해도
此中生理在	이 속에서 이치는 생겨난다.
大船力未贖	큰 배는 힘이 부치나
槎船易釣採	떼배는 고기낚시에 좋다.
長杠縛爲筏	긴 대 엮어 뗏목 만들고
泛泛一竿載	물에 띄워 낚시대 싣는다.
幸免風日惡	다행히 바람 불지 않아
猶自唱槎乃	노래 부르며 유유히 떠난다.

위의 시 〈槎船〉은 제주의 테우를 읊은 것이다.

槎船은 뗏목인 筏船을 말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를 ‘테우’, ‘터우’, ‘대위’, ‘떼배’, ‘대’,

18) 「국역지포선생문집」 성균관대학 대동문화연구 p.200. “州素無水田 惟牟麥 豆粟 而牛馬獐鹿 蹂躪穀 穗無實 又田無疆畔 豪強得以蠶食橫奪 民不諧苦 公聚石築垣 境界禁其兼 并而獸畜之患 亦祛民皆傳之”

‘터’ 등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보통 ‘테우’라고 많이 호칭되고 있다.¹⁹⁾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고도이다. 이런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훈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하였기에 배는 만들 수 없었고 그 대신에 때배인 테우를 만들어 생활했다. 제주 도민들은 이 테우를 제주섬 연근해에 띄워 연안 어업과 해산물 채취 등을 하였다. 어류를 잡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자리돔, 우럭, 오징어 등의 잡어 들이었다.

테우를 만들 때 쓰인 나무는 浮力이 좋은 한라산 800고지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썼다. 그 밖의 나무로 테우를 만들 때는 오랫동안 浮力이 좋지 않아 거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한라산에 구상나무를 벌목하려 갈 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음력 3월중 어느 寅日을 택하여 가는 풍습이 있다.

한편 테우는 각 개인이 소유하여 개인이 영리를 꾀하여 혼자 치부하지 않고 마을 단위 혹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같이 일하고 그에 따른 이익도 함께 나누었다. 이로 보면 제주섬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 결속력도 좋아 협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테우를 타고 약조건의 자연환경에 맞서 바다에서 싸우는 제주정신과 창조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2. 女人들의 生活風俗

1) 舂磨

舂磨聲正苦	연자방아 굴리는 소리 괴롭게
月夜起四隣	밤마다 이웃에 번지네.
如歌復如哭	노래 부를 듯하나 다시 울음소리 같아
切切怨何人	절절함이 누를 원망하나.
商販屢失利	상인들 장사도 못하고
瘠土無饒民	땅이 척박해 배부른 백성 없네.
夫孀宿娼家	지아비는 창가에서 자고
羸馬付他屯	말마저 다른 곳에 주어 버렸네.
朝朝乞米來	아침마다 쌀 빌어 오는
辛苦女子身	고생 겪는 여자의 신세여.

위의 시 〈舂磨〉는 연자매를 굴러가며 곡식을 도정하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고된 작업을 읊었다. 가장인 지아비는 일을 앓으면서 질탕하게 노는 반면 아낙네들은 잠시 쉴 새도 없이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무진 애를 쓴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봐도 결국은 남의 집에 가 곡식을 빌어다 먹을 수밖에 없다. 빈한한 가운데도 호국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제주 아낙네들의 강인한 생활력이 나타나고 있다. 靜軒은 그의 5언시 〈歎島俗〉에서 “내가 본 것은 세가지

19) 제주신문사 「古代濟州海路테우探查綜合報告書」, 1986, p.101.

농사인데 부녀가 경작과 수확도 하네. 아침 저녁 다시 맷돌 방아도 찼으니 누가 이 천한 풍속을 한번 바꾸어 놓으리”²⁰⁾라고 했을 정도이다.

2) 汲 簫

女人不知戴	여인들 머리에 이는 것 몰라
頭閉身不閒	머리는 한가해도 몸은 편치 않네.
擔重背如僵	무겁게 등진 게 곰사동이 같고
路險履又難	길 험해 내닫기도 힘들어,
氈氈短衣裳	치렁치렁 헤어져 버린 치마에다
那有好容顏	어떻게 얼굴 모양이 예쁠 수 있을까.
含着向隣嫗	가득 물길어 이웃 노파에게 가도
一勺倩人刪	단번에 물 샅 짚아 버리네.
歸來洗破釜	돌아와 씻다가 그만 깨어지니
剛被小姑訕	꼬장꼬장한 시누이의 나무람만 받네.

위의 시 〈汲簫〉은 제주 여인들이 물 길어 등에 지고 나르는 것을 읊었다. 제주도는 화산지형이어서 비가 오면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물을 구하려면 해안지대로 가서 솟말물을 길어와야 했다. 곧 등짐으로 물을 길어 나르는 아낙네들의 고된 삶을 표출하고 있다. 당시에 물 길어다 파는 장사도 있었음이 드러나 주목을 끈다. 척박한 자연환경은 제주섬 사람들을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몰아넣지만 그 중에도 재주의 아낙네들의 생활을 한층 더 힘들게 했다. 가사 노동과 생업을 위한 이증고로 말미암아 잠시도 쉴 시간이 없었다. 이에 제주도 여성의 근면성은 자연 환경에서 적용된 후천적 성품임을 알 수 있다.

영조 때 제주에 유배된 梅軒은 그의 7언시 〈耽羅雜詠〉 그 14에서도 “시골마을 아낙네 치마 부실하여 몸을 드러내고, 먼 곳 샘물을 길러 허벅지고 간다네. 처첩 한 집안살이 고통스러워 해저물면 절구 찼는 노래 원성같이 들리네.”²¹⁾라고 읊어 제주도는 乾川이어서 식수난임을 나타내고 있다.

3) 織 涼

家家涼竹板	집집마다 대자리 짜여진 게
織涼如織布	천을 짠 것 같구나.
一日斷一立	하루 동안 한개 썩 만들어
十日商般付	열흘이면 상인에게 팔아 달라 부탁한다.
商人負價歸	상인이 빚지고 돌아오니
何以納糶賦	어찌 糶米인들 줄어드랴.

20) “從古耽羅國 居民自瀨懶慵 余事親三農 婦女惟耕種 晨昏且臼舂 蠻風誰一變”

21) “村女露身裙不成 遠泉汲處負瓶行 兩妻一室生涯苦 日暮杵歌多怨聲”

細嫩反無用 촘촘하게 잔 것도 소용없고
 疏統世所取 성글게 잔 것이나 가져야 할 것이네.
 寄語島陸人 옥지 사람에게 말한다면
 盡爲奢侈誤 모두 사치품이라 잘못 알 것이네.

위의 〈織涼〉은 제주도 토산품인 靑竹으로 돛자리를 짜는 작업과 장사하는 일을 읊었다. 돛자리나 평사를 짜서 옥지에 왕래하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탁하지만 결국 이득을 못 본 채 끝나고 만다. 곧 중간 거래를 통한 상업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부지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제주섬의 지역적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제주섬 사람들이 삶에 적극적이고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자연적 사회적인 환경이 제주인이 삶의 양식을 압박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술한 고생 끝에 만든 靑竹 평상의 제값을 받지 못하여 좌절하여 버렸거나, 더이상 작업을 계속하여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주정신인 불굴과 근면성은 그 형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미래 지향적인 생활을 하였던 단면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

4) 潛 女

潛女彼亦人 잠수녀 저 또한 사람인데
 赤身泅滄溟 알몸으로 바다에서 헤엄친다.
 前身是鮫魚 전신은 상어였다가
 謫罰龍王庭 용왕계 유배당했네
 儻布纒掩昨 한치 썸의 베로 몸 가리고
 腥發已如星 비릿한 머리카락 별처럼 흩어졌네.
 不嫌容貌惡 용모가 추하다 해도 꺼리지 않고
 惟喜漁採盈 고기만 가득 채우면 좋아하네.
 歸家夫怒何 집에 가면 남편이 화내면 어찌나
 利薄恩愛輕 적게 캐면 받는 사랑도 적다네.

위의 시 〈潛女〉는 잠수녀의 어물채취의 장면과 생활상을 읊었다. 탐라 여자들은 잠수질에 능하여 열살에 벌써 앞 냇가에서 배운다고 영조 때 제주의 금오랑으로 온 기회에 잠녀를 소재로 石北申洗洙는 그의 「耽羅錄」에서 읊었다. 이어 “집집 여인들은 물가로 나왔도다 갈구리하나 채롱하나 뒤웅박하나로 발가벗은 몸동아리엔 조그만 잠방이를 입고 어찌 부끄럼이나 타 보았는가 바로 이때 깊고 푸른 바닷물에 겁도없이 들어가니 빈 공중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마치 펄펄 떨어지는 낙엽같구나”²²⁾라고 읊었다. 알몸 상태에서 겨우 가릴 곳만 가리고 용모에 관계없이 오로지 해산

22) 「石化文集」, 卷7, 「耽羅錄」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來南海遊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鞦一鞦一鞦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北人駭然南人笑 擊水相戲橫乘流 忽學鳧雛投無處 但見鞦子輕水上浮 斯須

물 채취에만 매달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잠수녀의 생활상을 표출하고 있다.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면서 얻는 댓가는 끼니 거르지 않는 최소한의 식량인 것이다. 목숨과 바꾸는 식량을 얻기 위해 생존투쟁을 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잠수녀의 삶에서 읽을 수 있다.

靜軒의 7언시 〈耽羅雜詠〉 그 17에서도 “한척의 짧은 치마를 입은 잠수녀들 알몸으로 바닷물 속에서 죽도록 잠수질하네. 두루 나와 거둬 잠수질하나 고기잡기 어려워 항상 관에서 얼마나 채찍 매를 맞아야 하나.”²³⁾라고 잠수녀의 생활상을 읊었다.

5) 房 妓

生女願爲妓	딸 낳으면 기녀되기 바라니
始免短布裳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네.
使君一顧盼	남자로 하여 한번 보이려
粉黛生輝光	단장곱게 하니 광채난다.
中廳與四學	기방에서 배움이 끝나면
各自喜入房	각자 기꺼이 入房하네.
候風別刀館	별도관에서 候風을 기다리니
人情不可常	인정은 몇몇지 못하고,
新者更修飾	신임관리 위해 꾸미니
舊者暗悲傷	구관은 몰래 마음만 아파하네.

위의 시 〈房妓〉는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호구책의 일환으로 제주 여아들이 기생이 되고 있는 정감을 읊었다.

여아들은 기방에 들어 시, 서, 금, 무를 익혀 기녀 수업을 다 받으면 기꺼이 入房을 한다. 입방하여 생기게 되는 돈과 물품은 가난한 사람에 더없이 좋은 것들이다. 신, 구 관리를 맞이하고 보내는 별도관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광경은 몇몇한 인정은 못된다. 그래서 구관은 못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和北嶺 別刀에는 閭閻 집이 산재하였었다. 英宗 己巳年(1749)에 제주도 목사로 부임한 鄭彦儒가 창작한 「耽羅別曲」의 一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論書를 압서오고 重溟을 겨우 건너 禾北嶺하정하여
 東城門 도라드니 閭閻이 錯雜한데 四隅에 石牆이오.
 街路가 廣平한데 兩行에 楊柳로다.
 觀德亭 넘히안겨 壯士의 禮貌맞고 殿牌에 肅拜하며

湧出碧波中 急引繩繩以腹留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 人生爲業何須此 爾獨貪利絕經死 豈不聞
 陸可農蠶山可採 世間極險無如水 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蚊食 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覓 八
 道進奉走京師 一日幾駭生乾鯁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纔經一嚼安已推 潛女潛女 爾
 難榮 吾自哀 奈何戲人性命 累吾口腹 嗟吾書生 海州青魚亦難喫 但得朝夕一滷足”

23) “潛女衣裳一尺短 赤身滅沒萬傾波 邇來役重魚難得 鞭扑尋常幾處衙”

斧鉞을 손에 쥐니 公然한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²⁴⁾

IV. 結 論

이제까지 擬窩 李源祚의 「耽羅十謠」를 살펴 보았다. 「耽羅十謠」는 한마디로 제주도의 풍속, 풍물 등을 읊은 竹枝詞이고 紀俗詩이다. 擬窩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당시의 제주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 제주도민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민생고에 허덕이던 시기로 救荒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 擬窩는 제주도의 목사로 선정을 베풀어 보려 진력한 것이다. 「耽羅十謠」는 목민관의 눈에 비친 탐라의 실상을 5언시의 형식으로 읊은 것이다.

이상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耽羅十謠」는 제주섬의 고유한 풍속과 풍물, 제주섬 사람들의 생활상이 적나라하게 잘 표출된 竹枝詞系 紀俗詩인 5언시다.

둘째, 「耽羅十謠」는 異香질은 풍물과 여인들의 생활상을 읊은 것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放牧〉, 〈踏田〉, 〈除草〉, 〈築場〉, 〈槎船〉 등은 異香질은 제주의 풍물을 읊은 것이며, 〈春磨〉, 〈汲簫〉, 〈織涼〉, 〈潛女〉, 〈房妓〉 등은 제주의 여인들의 생활상을 읊은 것이다.

셋째, 제주 여성들의 생활상을 읊은 〈春磨〉에서 〈房妓〉까지의 시적 내용은 제주도 여성의 삶을 증점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연의 악조건과 사회적 상황은 제주 여성들에게 운명론적 소극적 삶의 인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정신적으로는 강인하고 근면한 생활력을 심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放牧〉에서 〈槎船〉까지 시적 내용은 제주도의 異香질은 풍물을 증점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풍물은 제주섬만이 갖는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제주섬 사람들은 이런 특유한 풍물과 지리적 환경에서 낳고 떠들 듣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목민관으로서의 擬窩의 「耽羅十謠」를 통한 治者로서의 제주에 대한 역사인식은 관념적이거나 풍류적이기 보다 사실적이다. 또한 그런 바탕위에서 선정을 베풀게 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섯째, 풍토를 읊었을 경우 다른 작가보다 도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도하고 도민의 처지에서 도우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아울러 제주섬의 풍토, 풍속의 내용을 특색있게 함축하여 표출하였다.

24) 尹錫昌소장. 鄭彥儒 「耽羅別曲」 「耽羅文化」 제12호 199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27~36 참조.

Summary

A Study of 'Tamashipyo' written by Mr. Won-jyo Lee

Yang Soon-pil

Mr. Lee Won-jyo's 'Tamnashipyo (ten fork songs about Cheju Island)' is an endemic quatrain with five characters to a line, which belongs to a kind of verse, Eukjisa. It reflects the popular morals and natural objects of Cheju island in the latter half of the 1800's.

The time from 1841 to 1843, when Mr. Lee held a post of magisterate of Cheju, was a period suffering from many social difficulties.

In 1840 an English ship entered into the Kap'a isle, which is located at Taejung-eup in Cjeju, and plundered many oxen and horse. Mr. Lee started to assured a magistrate of Cheju in order to save the situation and to control the people of Cheju-do stably.

Magistrate, Lee Won-jyo made an effort to direct the affairs of Cheju-do well, under the adverse circumstances which Cheju-do people struggled against hard living and economic distress.

'Tamnashipjyo' is a quatrain with five characters to a line which expresses the customs, manners and natural scenery coming into the eye of a magistrate at that age.

To summarize,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Tamnashipjyo' expresses outspokenly the public morals, natural objects and living conditions indigenous to Cheju Island

Second, 'Tamnashipjyo' shows the unique customs of Cheju Island and living conditions of women in Cheju, for example, the situation of oxen and horses feeding in Cheju-do pasture, the native customs Island, Taewoo-used as a means of ship transportation from Cheju to the mainland, millstones, women's customs of drawing water from a well, woman-drivers' livers, local products and kisaengs lives.

Third, it should be noted that 'Tamnashipjyo' reflects more vividly the idea of practical science of that age rather than improve the staus of the simple endemic poetry in that Mr. Lee has tried to realistically express the customs of Cheju Island and to reflect the bitter living conditions of people in Cheju-do, showing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helping them on the people's side.